

19세기 중엽 일본의 정치적 변동과 군사기술의 변화: 내전과 소총기술의 발달을 중심으로

김성근
U.C. 버클리

- | | |
|--|--|
| I. 들어가며 | IV. 일본의 대서양무력충돌과 양이론의 추이 |
| II. 아편전쟁과 일본의 소총기술 발달 | V. 양이전쟁 후 일본과 조선의 군사기술:
비교사적 시각을 통해 |
| III. 군사적 위기와 막번체제의 특수성: 조선과의
비교를 통해 | VI. 나오며 |

I. 들어가며

19세기는 세계적으로 눈부신 무기 혁명이 일어난 시대였다. 서양사회에서는 수석(燧石)총에서 뇌관(雷官)총으로, 활강(滑腔, smoothbore)총에서 선조(旋條, rifle)총으로, 전장(前裝, muzzle loading)총에서 후장(後裝, breech loading)총으로, 나아가 단발총에서 연발총으로 총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전장식 활강포에서 후장식 강(鋼)제 선조포로 대포의 변혁도 급격하게 진전되어 나갔다. 이러한 눈부신 무기 혁명은 새로운 병기의 탄생과 함께 기존의 병기를 2류 병기로 빠르게 전락시켰고, 그것들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 세계시장에 대량으로 방출되었다. 문명전환기의 동아시아에 이러한 병기들이 흘러 들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아편전쟁(1840) 이후 서양 제국의 무차별적 공세에 직면했던 동아시아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서 군사력과 군사기술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18세기 말부터 주로 서양 의학을 소개해오던 일본의 난학(蘭學)은 군사과학 중심의 양학(洋學)으로 급격히 재편되었으며, 조선의 경우도 사정은 동일했다. 이 같은 동아시아의 위기상황은 상하이(上海), 나가사키(長崎), 요코하마(横浜)와 같은 몇몇 개항장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병기 거래시장을 형성시켰다. 1854년, 페리에 의한 개항 이후, 내외의 중층적 압력에 빠져있던 일본은 때마침 세계시장에 나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던 병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들어왔다. 이른바 죽음의 상인이라 일컬어지는 서양의 무기상들은 일본의 개항장을 근거지로 막대한 병기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들을 통해 수입된 병기가 막번체제(幕藩體制)라는 에도시대(1603-1867)의 정치구조를 해체시키고, 메이지 유신(1868)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본고는 아편전쟁의 발발 이후 메이지 유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군사기술에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당시 국제적으로 눈부신 발달을 보였던 소총 기술을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필자는 근대 일본의 정치적 격변과 군사기술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그것을 동시대 조선의 상황과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물론, 동시대 일본과 조선의 군사기술 발달을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에 가해진 서양제국으로부터의 외압의 차이, 위기감의 크기는 결코 계량적으로 측정될 수 없으며, 내외의 정치적 역학관계 또한 상이(相異)하기 때문이다. 비록 아편전쟁 이후의 동아시아는 세계자본주의 체제로의 강제적 편입이라는 서양제국의 거대한 외적 힘이 하나로 관철되는 과정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급박한 19세기의 환경에서는 그 강약의 차이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일본과는 달리 19세기 중엽의 조선은 왜 서양의 군사기술을 수용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군사적 근대화에서 일본에 뒤쳐진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것이 아니다. 필자의 관심은 아편전쟁 이후부터 메이지 유신에 이르기까지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사기술에 폭발적 성장을 가능케 한 ‘일본정치의 특수한 전환구조’를 해명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근대화 시기 일본의 총기 발달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¹⁾ 특히, 메이지 유신 전후의 소총사 연구는 당시의 총기 발달 상황을

1) 有馬成甫, “幕末における西洋火器の輸入”, 『日本史通』 120 (1958), 2-13쪽. 나아가, 철폐사가 토코로 소우키치(所所吉)의 뛰어난 저작들을 들 수 있다. 『火銃』 (東京: 雄山閣,

충실히 복원하고 재현함으로써, 근대 일본인들의 기술적 역량을 조감하는데 할애되어 왔다. 19세기의 군사기술에 있어서 여전히 초보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는 한국과 비교할 때, 일본에서의 연구는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부러울 정도로 활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그러나 19세기 일본의 총기 발달에 관한 연구는 치밀한 고증에도 불구하고, “근대 일본이 동아시아의 인국보다 이른 시기에 군사적 근대화의 길에 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³⁾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비교사적 시각’의 결락에 기인한다.⁴⁾ 즉, 19세기 중엽 일본의 군사기술의 폭발적 성장은

1964); 解古銃事典(東京: 雄山閣, 1971). 또한, 우타가와 다케히사(宇田川武久)의 연구도 빠뜨릴 수 없다. 砲の日本史: 火銃からライフル銃まで(東京: 吉川弘文館, 2007). 그리고, 기술사적 시각을 통해 에도 말기의 격변을 재조명한 저작으로는 오쿠무라 쇼지(奥村正二)의 연구가 있다. 火繩銃から船まで(東京: 岩波書店, 1970). 이밖에도 洞富雄, 幕末維新期の外と抵抗(東京: 校倉書房, 1977)의 제9장 “維新前後の小銃輸入量”, 441-456쪽; “維新における輸入洋式小銃の役割”, 砲(京都: 思文閣出版, 2007)의 제4장 제2절, 365-438쪽; 杉山伸也, “グラバー商: 幕末期の長崎貿易と外商”, 幕末維新の日本(東京: 山川出版社, 1981), 455-506쪽; 鈴木淳, “洋式小銃”, 新技術の社誌(東京: 中央公論新社, 1999), 10-37쪽 등은 막말기 일본의 서양식 소총 수입을 연구하는데 참조할 만하다.

- 2) 한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박성래, “대원군시대의 과학기술”, 한국과학사학회지 2권 1호 (1980), 3-15쪽; 최병옥,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경인문화사, 2000); 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대원군 집권기 무기개발과 외국기술 도입”, 학예지 제9집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2002), 137-166쪽. 하지만, 19세기 조선에서의 소총 제작, 생산 등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 3) 스즈키 카즈요시(鈴木一義)는 에도시대 화승총 제작소로 유명한 쿠니토모(友) 집단을 분석하여, 메이지 이후 일본의 근대화가 인근의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에도시대로부터 축적된 기술과 사회 체제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스즈키의 지적대로 에도시대의 일본에서 이미 기술의 대중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카라쿠리(태엽)를 이용한 자동인형의 제작, 그리고 그것을 카부키와 결합시킨 에도의 기술문화는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기술력에 대한 지나친 평가는 19세기 서양근대기술의 수용에 관한 일본 사회의 특수한 정황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 鈴木一義, “江のモノづくりと友一貫”, 江時代の科技術(長浜: 市立長浜城史博物館, 2003), 9-19쪽을 참조할 것. 한편, 군사기술이 제반 산업에 미치는 스피노프(spin-off)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있으나, 그것은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후일 다른 곳에서 논하고자 한다.
- 4) 필자가 여기서 언급하는 ‘비교사적 시각’이란 일본과 조선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단순한 병렬적 비교를 의미하지 않는다. 비교사를 조율하는 제 3의 메타 레벨의 기준은 그 자체로

일국적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라는 넓은 정치적 지평 안에서 일본의 정치적 변동이 가진 특수성을 해명할 때, 더욱 명확한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의해 일본이 실질적으로 군사적 근대화의 길로 전환하는 지점을 1860년대로 보고, 그것을 당시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던 조선의 정치체제와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논증하려고 한다.

제2절에서는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시작된 일본의 서양식 소총기술의 채용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특히, 우리는 아편전쟁 이후 일본의 서양식 소총기술 채용이 당시 국제적으로 눈부신 발달을 보였던 병기 시장에서 어떤 수준에 놓여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1860년 영불연합군에 의한 북경점령과 함께 점증된 군사적 위기감은 결국 1860년대 일본과 조선으로 하여금 서양 제국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른바 양이전쟁으로 불리는 사건이 그것이었다. 제3절과 제4절에서는 그와 같은 무력충돌이 발생한 원인과 경과를 돌아보고, 그 충돌의 결과로서 일본의 양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선의 경우와 비교하며 논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기서 양이전쟁을 이끌던 일본의 정치적 주체는 사실상 조선과는 다른 의도와 목적에 의해 전쟁을 치렀고, 그들이 놓인 국내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결과적으로 1860년대 일본사회의 특수한 정황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시 양이전쟁을 겪었던 조선과 일본이 서양열강의 압도적 군사기술에 의해 참패를 당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직접적인 무력충돌 이후, 서양 제국에 대한 양국의 움직임은 매우 상반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무력충돌의 종결과 함께 시작된 일본의 내전은 결과적으로 서양식 소총의 폭발적 수입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때문에 필자는 양이전쟁으로부터 촉발된 내전의 확대가 19세기 중엽 일본의 군사적 성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근대화에 있어서 일본의 특수성을 해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것이 제5절의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항상 역사적이며, 또한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비교사적 시각’이란 당시대의 역사적 사건에 관한 포괄적 접근을 의미한다. 즉, 19세기 일본을 군사적 근대화로 이끈 추동력은 일본사라는 한정된 맥락 속에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사라는 포괄적 시각 속에서, 비로소 유의미한 특수성으로 인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II. 아편전쟁과 일본의 소총기술 발달

1. 다카시마 슈한과 서양식 총기의 도입

서양열강의 군사적 압력이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아편전쟁 이후였다. 아편전쟁에서 청국이 열세라는 정보가 일본에 전해지자, 1840년 9월(이하 구력) 나가사키마치도시요리(長崎町年寄, 지금의 시장직에 해당) 다카시마 슈한(高島秋帆, 1798-1866)은 그 전쟁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막부에 보고했다. 의견서 안에서 슈한은 아편전쟁에서 “청국이 크게 패한데 반해, 영국 측에 단 한명의 사망자도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무기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일본도 서양처럼 포술을 근대화, 서양화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⁵⁾ 이와 같은 슈한의 서양식 포술 도입의 노력은 사실상 아편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1832년경부터 슈한은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총기인 수석(燧石)식 게베르총(Geweer)⁶⁾을 시작으로 곡사포(houwitser), 구포(mortier) 등의 신식대포 및 병서를 네덜란드로부터 매입하고 있었고, 슈한의 문하에는 각 번(藩)들로부터 다수의 견습생들이 모여들었다.⁷⁾

슈한의 건의서를 놓고 막부에서는 메쯔케(目付, 무가시대에 무사의 위법을 감찰하던

5) 勝海舟, 陸軍史(東京: 原書房, 1967), 2쪽.

6) 167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되어, 1777년 네덜란드 군대가 정식 채용함으로써 18세기 유럽 각국의 주력총으로 확산되었다. 게베르(Geweer)란 네덜란드어로 소총을 일컫는다. 발화장치로서 부싯돌(燧石)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승총보다는 재장전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았고, 우천시에도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뇌관식 소총이 일본에 알려지기 시작한 1840년대 후반부터는 수석총의 격발장치가 뇌관식으로 개조되거나, 총기자체가 폐기되게 된다. 나아가, 1855년에 막부가 각번의 소총 제작을 허가하고, 1859년에는 병기의 매매또한 허가함에 따라 각번들은 직접 개항장에 나와 외국의 무기상인들로부터 총기를 구입하였고, 또 번내의 대장간에 명령하여 게베르총을 모방하게 했다. 이 게베르총은 특히 막말기에 대량으로 제작되어, 1871년 유신 정부에 의한 총기 수거시에는 최대수량을 기록하였고, 1877년 서남지방의 제현(縣)들로 하여금 총기를 사들이게 했을 때는 무려 1만정에 가까운 게베르총이 민간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7) 有馬成甫, 高島秋帆(東京: 吉川弘文館, 1989), 61-72쪽.

직명)의 도리이 요조(鳥居耀藏, 1796-1873)가 답신서를 제출했다.⁸⁾ 도리이는 서양의 화포가 “접전시에 군사가 밀집하여 맹렬하게 화약을 쏟아 붓는 것을 주요한 방식”으로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 뒤, 그와 같은 전법은 서양제국이 예의지국(禮義之國)이 아니라, 오로지 이익만을 쫓는 집단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난학자들은 기(奇)를 좋아하는 병이 깊어, 결국은 화기(火器)와 행군포진(行軍布陣)의 방법뿐만 아니라 평소의 풍속과 습관마저도 서양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막부 권력의 핵심적 위치에 있던 도리이의 눈에는 서양학문을 배우던 난학자들이 서양의 풍속까지 흉내 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총기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화승총이 포르투갈 선원들로부터 전래되었듯이, 그간 유럽에서도 많은 개량과 변화가 있었기에, 일단 시험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결국, 슈한의 건의서에 대해 막부가 취한 조치는 다카시마식 서양 포술을 막부 소속의 포술가들에게 검토하게 한 뒤, 그 채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었다.⁹⁾

이와 같은 와중에도 아편전쟁의 전개 상황은 막부에 계속해서 전해져오고 있었다. 1840년 12월에 입항한 청국선의 보고서는 영국이 덩하이(定海)현을 점령했다는 것을, 다음 해 6월에는 광둥(廣東) 일대에 영국군의 공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해왔다. 아편전쟁에서 사실상 청국이 패배했다는 소식은 막부의 내외에 큰 위기감을 확산시켰다.

10)

이처럼 서양열강의 침공에 대한 긴장감이 더해가던 1841년 5월 9일, 에도 교외에 위치한 토쿠마루가하라(碓丸原)에서는 다카시마 슈한의 서양식 총대 조련이 실시되었다. 이 조련에는 막부 소속의 포술가인 이노우에 사다유(井上左太夫)와 타츠케 시로베(田付四兵衛) 등이 참관했는데, 시범 조련이 끝난 뒤 이노우에는 슈한의 서양 소총, 즉 수석총(燧石銃)에 대한 보고서를 막부에 제출했다. 보고서 안에서 그는 수석총은 발사 시에 부싷돌(燧石)이 강력한 스프링에 의해 강철판을 타격하여

8) 勝海舟, 陸軍史, 4쪽.

9) 같은 책, 4쪽.

10) 勝海舟, 開國起原下(東京: 原書房, 1967), 1178쪽. 1841년 8월, 텐문가타(天文方, 에도시대 천체관측을 담당하던 부서) 시부카와 로쿠조(川六)가 로우츄(老中) 미즈노 타다쿠니(水野忠邦)에게 보낸 상서안에는 청국이 결국 패할 시에는 영국군이 그 기세를 몰아 일본을 정벌하려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잘 드러나 있다.

점화시키는데, 이때 총이 흔들리기 때문에 명중률은 오히려 재래식 화승총보다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¹¹⁾

일본에 최초로 화승총이 전래된 것은 1543년 포르투갈 선원들에 의해서라고 알려져 있다.¹²⁾ 전래 당시의 화승총은 약 500미터의 최대사거리를 가졌는데, 사실상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유효사거리는 100미터 내외였다. 한번 발사 후 탄약을 재장전 하기까지는 약 20-25초의 시간이 걸렸다.¹³⁾ 단, 우천 시에는 화승이 비에 젖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몇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아시아 병사들의 주력 무기가 활과 창칼이었음을 감안할 때, 화승총은 가히 혁신적인 무기였음이 틀림없다. 일본에 전래된 이후, 화승총은 전국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틈타 빠르게 확산되었고, 마침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뒷받침하는 주력 무기로 자리 잡게 된다. 화승총으로 무장하여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전쟁 초기 육전에서 조선군을 연파하며 파죽지세로 북상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화승총은 화승을 화승물림쇠에 건 것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화승이 화명(火皿)의 화약에 점화하는 방식이었기에, 화구에 직접 불을 붙여야 하는 지화식(指火式)의 조선식 화기에 비해 그 조작의 간편성과 속도에서 크게 앞선 것이었다. 지화식 점화법은 일반적인 총기의 발달에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에 속한 것으로, 조준과 점화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결정적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선조실록(宣祖實錄)』에도 당시 일본군이 지녔던 화승총의 위력에 대해 잘 묘사되어 있다. 국왕 선조는 조총(일본식 화승총)의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하기도 했고,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한 일본군들에게 그 제작을 명령하는 등, 조총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¹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이후, 화승총의 중요성은 새롭게

11) 勝海舟, 『陸軍史』 上, 14-16쪽.

12) 근래 들어 일본으로의 화승총 전래에 관해서는 다른 학설도 제시되고 있다. 우타가와 다케히사(宇田川武久)는 화승총이 포르투갈 선원들로부터가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의 해역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던 왜구(倭寇)들에 의해 일본에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東アジア兵器交流史の探究』(東京: 吉川弘文館, 1993), 145쪽. 우타가와와 일본으로의 화승총 전래에 관한 기존의 학설들을 최근의 책에서 정리하고 있다. 『砲』(東京: 平凡社, 2006).

13) 사실, 화승총의 유효사거리와 발사속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단언하기 힘들다. 그것은 화약의 성능, 총신의 길이와 상태, 탄환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는 토코로씨의 설명을 참고하도록 한다. 『火銃』(東京: 雄山閣, 1964), 50-51쪽.

14) 국왕 선조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옛 사람의 말에, ‘조총은 활보다 다섯 배나 뛰어나다’고

부각됐으나, 그것을 확보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화승총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토요토미의 조선 침략은 해전에서 강세를 보인 조선 수군에 의해 결국 무위로 끝났고, 일본에서는 도쿠가와(徳川) 막부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오랜 국내외의 전란을 마감하고 전국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1639년 나가사키 이외의 모든 무역항을 폐쇄함으로써 일본은 마침내 장기간의 쇄국체제에 돌입한다. 쇄국 이후 페리의 내항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간에 걸친 에도시대는 큰 전란이 없는 평화시대가 지속되었다. 이 같은 시대적 안정 속에서는 한때 호황을 누리던 화승총의 제작도 급격히 쇠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⁵⁾ 전국시대 화승총의 주생산지였던 쿠니토모무라(國友村)의 대장간들은 그 제작 기술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매년 막부로부터 소정의 화승총 제작을 의뢰받는 것 이외에는 거의 몰락해 갔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대장장이들도 대부분 전업을 시도하거나 자연히 소멸해갔다. 나아가 안정적인 시대가 계속되면서, 그나마 제작된 화승총도 실전에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수렵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전통적 포술가들의 눈에는 발사 시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불이 붙은 화승을 화약판에 가볍게 접촉시키는 것만으로 점화할 수 있었던 화승총은 슈한이 도입했던 수석총과 비교해서도 결코 그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임진, 정유재란의 종결과 청국의 중원 지배 이후,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를 걸어왔던 동아시아와는 달리, 근대 유럽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¹⁶⁾ 그와 같은 시대상황은 전쟁의 양식을 대규모의 물량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켰고, 화기

하였으니, 우리나라가 이제 이를 가볍게 여겨서야 되겠는가?” 宣祖實錄 선조28년 10월 8 일조.

- 15) 노엘 페린(Noel Perrin)은 총을 버리고 칼로 복귀한 에도시대의 사무라이 문화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표명하고 있다. *Giving Up the Gun: Japan's Reversion to the Sword, 1543-1879* (Boston: D. R. Godine, 1988). 저자의 논문은 역사 논문과는 거리가 멀지만, 군사기술이 불가역적으로 발달한다는 기존의 선입견을 깨뜨리는 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16) 근대 유럽에서의 병기 발달이 서양열강의 식민지 개척사업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책으로는 다니엘 헤드릭(Daniel R. Headrick)의 책이 흥미롭다. *The Tools of Empire: Technology and European Imperial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본 논문과 관련해서는 특히 제2부의 “총기와 정복(Guns and Conquests)”을 참조할 것.

또한 명중의 정도보다는 밀집 부대에서 총탄을 대량으로 쏟아 붓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개량되어 나갔다. 즉, 전장에서의 신속한 발사와 물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카시마 슈한이 도쿠마루가하라에서 시연했던 수석총은 결국 그와 같은 유럽의 새로운 전쟁양식에 적합한 화기였다. 탄생 당시의 화승총은 혁신적인 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승에 불을 점화해야 하는 측면에서 결점이 없지 않았다. 특히 우천 시나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불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나아가 야간 전투 시에는 불이 적에게 노출될 위험 또한 매우 높았다.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싯돌의 마찰열을 이용하여 화약에 점화하는 방식을 고안했고, 그것이 바로 수석식 발화 장치의 탄생을 이끌어냈다. 이 장치는 방아쇠를 당기면 격발기구와 연결된 부싯돌이 강철판을 두들겨 불꽃을 일으키고, 그것을 화약에 점화하는 방식이었다. 16세기 후반부터 총기에 도입된 이 수석식 점화장치는 그 후 뇌관식 점화장치가 보편화되기까지, 약 200여 년간 유럽식 소총의 주요한 격발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당시 슈한이 막부에 소개한 총은 바로 이 수석식 게베르총이었다.

토쿠마루가하라에서의 슈한의 시범 조련 후, 막부의 첩포가 이노우에 사다유의 보고서는 전통적 포술가들이 수석총에 대해 가진 일반적인 견해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¹⁷⁾ 결국, 로우츄(老中, 장군 직속으로 국정을 총괄하던 직책) 미즈노 타다쿠니(水野忠邦, 1794-1851)는 수석총에 대한 이노우에의 평가를 무시할 수 없었던 듯, 다카시마식 포술에 대해 제한적인 전수만을 허가하게 된다.¹⁸⁾

그러나 당시 수석총이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에도시대 이후

17) 勝海舟, 陸軍史, 上, 18쪽. 수석식 점화장치는 사실상 에도시대 중기부터 일본에 알려졌다. 그러나, 화승총에 익숙한 전통적 포술가들은 수석식 점화 방식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수석총의 점화 방식은 발사 당시 총을 흔들리게 하므로 명중률이 화승총보다 떨어진다는 점, 나아가 일본산 부싯돌은 그 불꽃이 크지 않아 점화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이 결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당시 이노우에 사다유를 비롯한 막부 소속의 전통 포술가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서양류의 학문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도리이 요조를 중심으로 한 구 정치세력은 다카시마 슈한을 급기야 모반의 혐의로 구속하기에 이른다.

18) 당시 다카시마식 포술은 나라야마(江山)의 다이칸(代官, 번주 대신에 임지의 행정과 사무를 돌보는 직책) 에가와 히데타츠(江川英龍, 1801-1855) 한명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에가와는 슈한의 제자로서 19세기 초 서양포술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인물이다. 하지만, 제한적이었던 다카시마식 포술의 전수는 1842년 6월 9일, 해안방비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막부에 의해 그 제한이 해제된다.

지속된 사회적 안정 때문이기도 했다. 그와 같은 사회적 안정 하에서는 대규모 물량을 소비하는 데 적합한 총기보다는 수렵에 목적을 둔 총기처럼 명중률을 우선시하는 총기가 여전히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편전쟁 직후 일본 연해에는 이양선의 출몰이 빈번해지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총기의 신속한 발사 또한 점점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가고 있었다. 19세기 중엽 일본의 군사기술은 유럽식 전쟁양식으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위기의 심화 속에서, 해안경비를 담당하며 국제사회의 변화에 민감했던 몇몇 번(藩)들은 특히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편전쟁의 발발로부터 8년 뒤인 1848년, 사가한(佐賀藩)의 경우는 기존의 화승총을 모두 처분하고 수석총으로 이행하는 군사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했다. 그러나 1850년대 들어 점화 장치에 혁명적 변혁을 몰고 온 뇌관식 소총이 일본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수석총도 더 이상 인기를 끌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각 번(藩)들도 기존의 수석총의 격발 장치를 뇌관식으로 개조하거나, 서양으로부터 직접 뇌관총을 수입해 들여오면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군사정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2. 페리의 내항과 격발 장치의 진화

1853년에 내항한 페리는 막부에 소총 한 자루를 증정했다. 미국의 존 홀(John H. Hall)이 발명했다고 알려진 그 뇌관식 라이플총(hall rifle)은 군용에 채택된 후장식 총으로는 세계 최초의 총이었다. 기존의 수석식 격발장치를 대신하여 등장한 뇌관식 격발장치는 비교적 작은 충격만으로도 발화를 가능하게 했기에, 수석식 총기의 약점이었던 발사시의 총기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었다.¹⁹⁾ 나아가, 라이플총(선조총)은 당시 서양권에서는 막 보편화되기 시작한 총이었다. 1846년, 프랑스의 육군 대위 크로드

19) 소총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격발장치의 진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소총은 그 특성상 화약을 폭발시켜 추진력을 얻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급한 전장에서 얼마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화약을 폭발시킬 것인가는 소총개발자들 모두의 관심사였다. 소총이 개발된 이후로 격발장치의 진화는 화승식, 차륜식, 수석식, 뇌관식의 대략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뇌관식도 초기에는 탄환의 뇌관에 바늘모양의 금속을 삽입하여, 격발기구가 그것을 가격하는 방식, 수은 뇌산염을 이용한 뇌관을 격발기구로 강타하면, 즉시 폭발하여 화약까지 불꽃을 전달하는 방식 등이 이용되었으나, 나중에는 화약과 탄환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게 된다.

에티엔느 미니에(Claude Etienne Minie)는 탄환의 뒷면에 홈을 파서, 그 안에 철조각 등을 삽입하여, 발사 시에 그것이 탄체를 확장시켜 총신 내부의 나선형 홈에 밀착시킴으로써 총탄에 회전을 거는 기구를 고안했다. 총신 안에 나선형 홈을 판 이 방식은 기존의 원형 총탄 대신에, 원형추 모양의 총탄을 사용한 것으로, 사거리뿐만 아니라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상승시켰다. 1851년 영국이 이 방식을 채용한 이후로 이 미니에식 소총은 유럽 각지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획기적 성능의 미니에 라이플총은 영국,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등지에서 신속하게 복제되었는데, 특히 영국의 런던 북부에 있던 엔필드 병기 공장에서는 가스압만으로 탄체를 확장시켜 탄환에 회전을 거는 방식으로 이 소총을 개량했다. 일명 미니에식 엔필드총으로 불리던 이 소총은 성능이 매우 뛰어나, 1853년 영국에서 P1853이라는 이름으로 제식에 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일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미국에 대량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19세기 중엽 이후, 세계 총기 시장의 중심지는 사실상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남북전쟁 당시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많은 소총을 수입했지만, 동시에 자체적으로 라이플총의 눈부신 진보를 이끌어냈다. 1860년 미국에서 발명된 세계 최초의 후장식 7연발총인 스펜서 라이플총(spencer rifle)을 비롯하여, 같은 해 후장식 16연발총인 헨리 라이플총(henry rifle) 등이 새롭게 등장했다.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할 당시에는 전장식 활강총이 주요한 총기였으나, 4년 뒤 종전 시에는 후장식 연발 라이플총이 주력병기로 사용될 정도였으니, 당시 미국에서의 총기 발달이 얼마나 신속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동아시아 각국이 서양열강의 동진정책에 직면했던 당시는 것처럼 서양제국에서 눈부신 총기의 진보가 이루어지던 때이기도 했다.

개항 당시의 일본은 이러한 병기 혁명의 와중에 놓여 있었고, 새로운 병기가 개발됨에 따라 2류로 전락하거나 임무를 마친 중고 병기들은 일본으로 흘러들어왔다. 특히 1859년, 막부가 수호조약체결국에 대해서 나가사키, 요코하마(横浜), 하코다테(函館)의 3항을 개항한 이후에는 대량의 서양식 소총이 합법적으로 또는 밀무역의 형태로 일본에 유입되었다. 막부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된 1860년대의 일본은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병기 거래 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이른바 죽음의 상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병기 판매상들은 사회적 혼란과 전쟁의 위기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²⁰⁾ 남북전쟁에서

20) 井勝彦, 大英帝の死の商人 (東京: 講談社, 1997)은 막말기 일본의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서양인 병기 거래상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맹활약했던 미니에식 엔필드총은 종전과 함께, 당시 요코하마의 네덜란드인 무기상 스넬(Schnell) 형제²¹⁾, 나가사키의 영국인 무기상 그라바(Thomas Blake Glover, 1838-1911) 등에 의해 일본으로 대량 수입되었다.²²⁾

III. 군사적 위기와 막번체제의 특수성: 조선과의 비교를 통해

1853년 6월 페리가 이끌던 미국의 군함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 막부는 그 해 9월 각 번(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내렸다. “화물선 이외에 대선의 건조를 금지한 법령에 있어, 작금의 시대는 대선을 필요로 하기에 이제부터 다이묘(大名)들의 대선 제작을 허가한다.”²³⁾ 일찍이 도쿠가와 막부는 1609년 각 번(藩)들로부터 500고쿠쯔미(石積)²⁴⁾가 넘는 대형선박을 몰수하여 외국무역을 막고, 1635년에는 500고쿠쯔미 이상의 선박의 건조를 금지하는 법령을 내렸다. 그것은 막부가 나가사키를 통한 네덜란드 무역과 중국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강대한 서쪽 번(藩)들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려는 고육지책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페리의 내항을 통해 서양제국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자, 막부는 에도 초기부터 수백 년간을 유지해왔던 대형선박의 건조 금지령을 결국 해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막부가 가진 위기감은 결코 서양제국의 침공으로부터 기인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에도시대 일본의 정치 시스템이었던 막번체제는 막부의 쇼우군(將軍)과 각 번(藩)들의 다이묘 사이에 정치적 주종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막부의 쇼우군은 다이묘들 중에서 천황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 받은 존재에 불과했고, 쇼우군과 다이묘들

21) 막말기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활동한 무기상인으로 통상 스넬 형제로 불린다. 형은 존 헨리 스넬(John Henry Schnell), 동생은 에드워드 스넬(Edward Schnell)로서 보신전쟁(戊辰戰爭, 1868-1869)때 각 번(藩)의 무기거래를 알선했다.

22) 그 수량은 약 5만 여정으로 보신전쟁에서 사쯔마(薩摩)와 초슈(長州)등 막부에 맞선 주력군은 대부분 이 총으로 무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23) 『大日本古文書幕末外國關係文書』 권2, 자료번호125. “荷船之外大船停止之御法令二候處, 唯今之時勢, 大船御用之儀二付, 自今諸大名ハ大船製造致候儀”.

24) 고쿠쯔미(石積)란 에도시대 부피를 재는 단위이다. 500 石積는 약 75톤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에는 태생적인 정치적 긴장관계가 잠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막부의 쇼우군은 언제든지 군사적 위협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번(藩)들의 일탈을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위기감은 이미 현실적인 것으로 전환해 가고 있었다. 아편전쟁 이후, 슈한이 소개한 서양식 소총의 채용을 주저하던 막부와는 달리, 당시 몇몇 번(藩)들은 다카시마식 포술의 도입을 일찍부터 시작했다. 사가한(佐賀藩)의 경우는 1832년 슈한으로부터 총기의 전수를 시작했고,²⁵⁾ 타하라한(田原藩)은 1835년에, 사쓰마한(薩摩藩)의 경우는 1838년에 각각 슈한의 문하에 견습생을 파견하고 있다.²⁶⁾ 이와 같은 번(藩)들의 빠른 대응은 당시의 대외적 위기를 사실상 자기 번(藩)의 군사력 증강에 연결시키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막부의 대응은 어떠했을까? 대선건조금지령의 해제와 동시에, 막부는 네덜란드의 지원으로 1855년부터 근대적 해군의 창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가사키 해군전습(長崎海軍傳習)으로 불리는 해군창설의 계획은 분명히 외압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번(藩)들에 대한 막부의 군사적 우월을 공고히 하려는 끊임없는 견제의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²⁷⁾ 즉, 막부의 의도는 번(藩)들의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것을 어디까지나 막부 중심의 거국적 체제 속에 포섭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중엽 서양열강으로부터의 외압에 직면한 일본 정치구조의 특수성은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통해 외압에 대응했던 조선의 경우와 비교할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조선정부가 서양제국에 대한 위기감을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영불연합군에 의한 북경함락의 소식이 조선에 도착한 1860년 무렵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영불연합군과 청국간의 전쟁 상황은 제1차 아편전쟁보다도 정확하게 조선정부에 보고되었다. 즉, 천진조약(天津條約, 1858년 7월)의 체결,²⁸⁾ 함풍제(咸豐帝)의 열하몽진(熱河蒙塵, 1860년 9월)과 원명원(円明園)의 파괴, 그리고 북경협정의 체결(1860년 10월)²⁹⁾ 등의 자세한 정보가 속속 조선에 전해졌다. 나아가 철종11년(1860) 12월 9일, 시헌서노자관(時憲書賚咨官) 김경수(金景遂)의 특별긴급보고는 청국이 영국,

25) 秀島成忠編, 『佐賀藩海軍史』(東京: 原書房, 1972), 3쪽.

26) 島津公爵家御藏版, 『薩藩海軍史』上권(東京: 原書房, 1968), 388쪽.

27) 나가사키 해군전습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藤井哲博, 『長崎海軍傳習所』(東京: 中公新書, 1991).

28) 『承政院日記』철종10년 3월 20일조.

29) 『同文彙考』4, 咸豐 11년 6월 19일조, (使臣別二), 3818쪽.

프랑스, 러시아, 미국과 신조약을 맺었고, 천주교의 전래와 학습을 인정했다는 것과, 배상금으로서 은화 8백만량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³⁰⁾ 이 보고를 받은 국왕 철종은 다음날 중신회의를 소집하여 서양열강의 조선침략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위기감을 토로했다.

30) 日省 철종11년 12월 9일조, 499-501쪽.

천하의 중국이 적을 막지 못했다면, 그들(서양제국)의 무기의 위력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으며, 북경이 위기에 처하면 조선도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교역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윤상(倫常)을 어지럽히는 술(術)을 사해에 전파하려고 하고 있으며, 조선도 그 피해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그들의 선박은 일순간에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는가!

31)

이처럼 영불연합군에 의한 북경점령에 의해 조선정부의 위기감이 매우 심화되었음은 국왕 철종의 언급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물론, 그와 같은 서양제국에 대한 위기감이 곧바로 군사기술의 강화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조선의 경우는 1866년 프랑스 함대의 침공이라는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의해 실질적인 군사력의 재편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1864년, 철종의 죽음 이후 당시 12세였던 어린 고종(在位 1863-1907)이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정치에 전면으로 등장한 것은 그의 실부 흥선대원군이었다. 대원군은 집권기(1865-1873) 동안 대외정치에 있어서 강력한 쇄국양이책을 내세웠는데, 그와 같은 정책을 사상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한 것은 사실상 위정척사파들이었다.³²⁾ 이항노(李恒老, 1792-1868)와 기정진(奇正鎭, 1798-1876)을 2대 거두로 하는 위정척사사상은 성리학을 극단에까지 순화시킨 것으로³³⁾, 조선정부의 쇄국 정책에 대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고종 3년(1866), 천주교도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불러 온 병인사옥(丙寅邪獄)은 위정척사파들의 지지를 얻은 대원군이 성리학을 어지럽히는 외래의 사상들을 사술(邪術)로서 규정한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 사건으로 수천 명의 조선인 천주교도들과 프랑스인 선교사 9명이 처형되었고, 그것은 결국 병인양요라는 프랑스 함대와와의 무력충돌로 이어졌다. 병인양요의 구체적 전개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언급할 수 없지만, 서양제국의 강렬한 외압에 대해 조선 정부가 취한 정책은 강력한 중앙집권의 강화였다. 그것은 사상적으로는 쇄국양이론을 기반으로 하면서

31) 承政院日記 철종11년 12월 10일조.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上日, 日前見賚咨官手本, 則中國事誠萬萬憂悶, 夫以天下之大, 猶不能抵敵, 則其鋒之懾悍…燕京之於我國, 唇齒之此也, 燕京若危則我國豈晏然乎, 且聞彼之講和云者, 不徒交易之計而已, 以其蔑倫悖常之術, 傳染於四海者也, 然則我國亦難免其害, 況舟楫之利, 一瞬千里者乎”.

32) 대원군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연갑수의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대원군 집정의 성격과 권력구조의 변화”, 한국사론 27 (서울대학교, 1992).

33) 姜在彦, 近代朝鮮の思想 (東京: 明石書店, 1996), 64쪽.

군사적으로는 관민을 총 동원한 결사항전이었고,³⁴⁾ 정부를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결집은 결과적으로 프랑스군을 격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1860년대 들어 대외적 위기에 직면한 조선정부는 군사적 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지만, 그 힘의 분출구는 막번체제라는 일본의 정치구조가 가진 벡터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서양세력의 동아시아 침공이 조선에는 중앙집권화된 정부를 중심으로 관민일체의 단결을 추동했다면, 일본에서 그것은 막번체제를 와해시키는 내적 균열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IV. 일본의 대서양무력충돌과 양이론의 추이

조선에서 병인양요가 발발하기 직전, 후일 메이지 신정부의 주축이 되었던 두 개의 번(藩), 사쓰마(薩摩)와 초슈(長州)도 서양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일명 사쓰마(薩英) 전쟁으로 불리는 사쓰마한(薩摩藩)과 영국간의 전쟁은 1862년 8월 21일, 양이의 방책 논의와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를 쇼군코우켄쇼쿠(軍後見職, 막말에 신설된 정사(政事) 총재직)로 임명하는 칙사의 경호역으로 에도에 갔다가, 그 귀로에 있던 사쓰마의 한슈(藩主) 시마즈 히사미츠(島津久光) 일행이 요코하마 부근의 나마무기무라(生田村)에서 말에 탄 영국인 4명이 행렬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한명을 참살(斬殺), 두 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되었다.³⁵⁾ 이 사건의 배상문제를 놓고, 영국과의 사이에 전운이 감돌던 사쓰마한은 1863년 초부터, 영국함대의 내습에 대비하여 계엄상태에 돌입했고, 포대의 수리, 대포의 설치, 탄약의

34) 당시, 양측이 지녔던 무기의 구체적 실상은 알 수 없지만, 미국의 동양학자 그리피스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 6천여정의 화승총을 노획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W. E.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London, 1882), p. 382. 1846년 미니에식 소총을 개발하여 세계 총기기술에 일대 변혁을 선도했던 프랑스군과 재래식 화승총으로 무장한 조선군은 그 전투력에서 적지않은 차이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를 비롯한 경기, 황해도에서 상경한 산행포수들의 활약 때문이었다고 알려진다. 備邊司藤錄 高宗3년 10월 23일조를 참조.

35) 公爵島津家編纂所 編, 薩藩海軍史 中 (東京: 原書房, 1968), 298쪽.

제조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³⁶⁾ 배상요구에 응하지 않던 사쯔마한에 대해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감행하기로 한 영국의 정벌함대는 7척의 군함을 이끌고, 6월 27일 카고시마(鹿島) 해상에 나타났다.³⁷⁾ 그리고 7월 2일 정오, 사쯔마 측이 카고시마의 해안 포대로부터 영국함대를 포격함으로써, 양측은 마침내 개전에 이르게 되었다.³⁸⁾ 전투 당시 사쯔마 측은 카고시마 해안에 10포대, 85문(門)의 대포(소포10문, 공성포45문, 야포18문, 구포10문)를 장비하고 있었다.³⁹⁾ 사쯔마 측의 공세가 카고시마 해안을 둘러싼 이 10포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영국 측은 1,400여명의 병력과 7척의 군함에 장착하고 있던 합계 89문의 포로 대응했고⁴⁰⁾, 특히 최신식의 암스트롱포(110파운드와 40파운드, 1860-61년 제조, 철제 또는 강제)⁴¹⁾를 구비하고 있었다. 후장식 선회포(旋回砲)였던 암스트롱포는 라이플총처럼 포신에 나선상의 흠을 판 것으로 파괴력과 사거리가 압도적이었으며, 당시로서는 영국에서도 최신식의 대포에 속한 것이었다. 사쯔마의 선제공격을 받은 영국함대는 우선 암스트롱포로 카고시마의 최북단에 위치한 기온노스(祇園州) 포대(당시, 이곳에는 6문의 포가 설치되어 있었다)를 집중 포격한 뒤, 해안의 북단으로부터 나머지 포대를 차례로 공격하며 남하하는 전술을 취했다. 그러나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사쯔마 측의 포격에 의해 영국 측에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7월 2일에 시작된 전투는 이틀 후 영국함대가 카고시마 해안을 빠져나가 요코하마로 귀항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이 전투에 의해 사쯔마 측은 사망 5명, 부상 14명, 그리고 탄약고, 류큐선(琉球船) 3척, 와선(和船, 일본의 전통적인 배) 2척 등을 소각 당했고, 또 마을 일부가 전소했을 뿐만 아니라, 군수공장이었던 슈우세이칸(集成館)도 반사로와

36) 같은 책, 485-488쪽.

37) 영국 측의 사쯔마(薩摩) 정벌은 어디까지나 시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듯, 정벌함대는 임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석탄마저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책, 470쪽.

38) Ernest Mason Satow, 坂田精一譯, 一外交官の見た明治維新 上 (東京: 岩波文庫, 1980), 104쪽. 나아가, 사쯔마에 전쟁의 구체적 전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萩原延壽, 薩英戦争 (東京: 朝日新聞社, 1998).

39) 薩藩海軍史 中, 429쪽.

40) 原剛, 幕末海防史の究 (東京: 名著出版, 1988), 66쪽.

41) 영국의 윌리엄 조지 암스트롱(Sir William George Armstrong, 1810-1900)이 발명한 대포로서, 길이가 다른 몇 개의 코일(coil)을 겹쳐 포신을 만들었다. 이 대포의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은 암스트롱은 1857년부터 1861년 사이에 무려 1,600문의 암스트롱포를 영국군에 납품했다. 이내주, 서양 무기의 역사 (살림, 2006), 59쪽.

용광로만을 남기고 대포 제조소와 공장 등 거의 모든 시설이 전소되었다.⁴²⁾ 이에 반해, 영국 측은 사망 11명, 부상자 50명 및, 기함 율리아라스호와 아가스호가 포탄에 의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는 양측의 시각이 달랐다 하더라도,⁴³⁾ 사쯔마와 영국함대간의 전쟁이 사쯔마 측에 서양무기의 우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해상은 실질적으로 영국함대에 의해 완전히 장악 당했고, 개인화기에 있어서도 사쯔마 측은 게베르총과 화승총을 가지고 전투에 참가했지만, 폭풍우의 영향으로 재래식 화승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⁴⁴⁾

이 전투에서 영국군이 얻은 군사적 성과는 최신식 암스트롱포를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사쯔마 측이 보유한 대포의 평균 사거리가 약 1,100미터 내외였던데 반해, 암스트롱포의 사거리는 무려 그 4배에 달했고, 일반적으로 5-7분당 한발이라는 구식 대포와 비교할 때, 선회포인 암스트롱포는 회전타법이 가능했기에, 신속함과 파괴력에 있어서도 양측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전에서 시험된 암스트롱포도 결코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었다. 전투 후, 쿠퍼제독이 본국의 해군본부에 제출한 〓율리아라스호 장전 암스트롱포 및 그 포차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함 율리아라스호에 장착되어 있던 13문의 포(110파운드 포 5문, 40파운드 포 8문) 중에서 무려 6문이 포차 파손 및 포신 파열을 일으켰다.⁴⁵⁾ 나아가, 후일 전장을 시찰하던 사쯔마 측은 “슈우세이칸과 이센교쿠(〓〓局)를 돌아보니, 잔류한 적탄이 대소 30여 개, 그 중에서도 작렬하지 못한 유탄이 과반수에 달했다”고 기록했다.⁴⁶⁾ 당시 세계최강을 뽐내던 영국해군의 대포에도 결코 결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와 같은 새로운 병기의 시험은 양측 간에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가

42) 〓薩藩海軍史〓 中, 492-504쪽.

43) 당시, 사쯔마에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영국 측은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었으며, 사쯔마 측도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薩藩海軍史〓 中, 578-585쪽. 단, 영국 측에 의외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사쯔마 측의 예기치 않은 기습공격 때문이었다.

44) 〓薩藩海軍史〓 中, 550쪽.

45) “〓鹿島〓砲〓に使用せしアームストロング砲に就き英〓の報告”, 〓薩藩海軍史〓 中, 522-533쪽.

46) 같은 책, 550쪽. 사쯔마에 전쟁 후, 영국 측은 암스트롱포를 후장식으로부터 전장식으로 되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실전에서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保谷徹, 〓日本軍事史〓 (東京: 吉川弘文館, 2006), 257쪽을 참조할 것.

없었다면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사쓰에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863년 5월 10일, 당시 존왕양이파(尊王攘夷派, 천왕을 방패로 양이를 실현시키려던 세력)의 또 다른 거점이었던 초슈한(長州藩)은 시모노세키(下関) 해협을 통과하는 외국선박을 향해 포격을 개시했다. 초슈한의 포격은 동년 4월 20일, 막부가 발표한 양이 실행의 최종기한을 근거로 일어난 것이었다. 즉, 당시의 막부는 일본 각지로부터 양이를 실시하라는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현실적인 양이의 무모함을 인지했던 막부는 양이의 실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지만, 천왕을 중심으로 규합한 각 번(藩)들은 막부에게 양이의 실시를 끊임없이 요구했고, 막부로서도 결과적으로 5월 10일을 기한으로 양이가 시작됨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막부의 양이 실시 선언에 의해 초슈한은 시모노세키 해협을 통과하고 있던 미국상선 펜브로크호(Pembroke, 5월 11일 포격)를 비롯하여, 프랑스 군함 켄상호(Kien-Chang, 5월 23일 포격), 네덜란드 군함 메두사호(Medusa, 5월 26일 포격) 등을 차례로 포격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서양함대들은 초슈한의 정벌을 결정했고, 1864년 7월 27, 28일의 양일간에 4개국 연합함대는 요코하마를 출항하여 시모노세키로 향하게 된다. 당시 연합함대는 일찍이 사쓰에 전쟁에 참가했던 영국의 율리아라스호(Euryalus, 포35문)를 비롯하여 총 17척(영국선 9척, 프랑스선 3척, 네덜란드선 4척, 미국선 1척)의 군함과 대포 291문, 병력 5,014명으로 구성되었다. 초슈 정벌로 향했던 4개국 연합함대의 규모는 무기, 병력면에서 사쓰에 전쟁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당시, 초슈한의 대포는 약 120문으로서, 대부분 청동제의 구식포로 알려져 있으며, 군함 또한 헤이신마루(丙辰丸, 1856년 자체적으로 건조한 목조군함)가 단 한 척 남아있을 뿐이었다.⁴⁷⁾ 8월 5일 연합함대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시작된 초슈한의 양이전쟁은 8일까지 계속되었고, 그날 정오를 넘어 초슈한의 강화사절이 연합함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전투는 종결을 맞이한다.

48)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양이전쟁은 결과적으로 일본 측의 패배로 끝났다. 그렇다면, 두 번에 걸친 이 서양제국과의 무력충돌은 일본의 정치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47) 같은 책, 92쪽.

48) 같은 책, 101쪽. 이 전투로 인해 초슈 측에는 전사자 18명, 부상자 29명이 발생했으나, 연합함대측도 큰 타격을 입어, 영국군 8명, 프랑스군 2명, 네덜란드군 2명, 합계 12명의 전사자와 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영국과의 전투를 끝낸 사쯔마한은 영국함대의 재침에 대비하여 즉시 포대의 복구를 시작하지만, 한편으로는 종래의 재래식 무기로는 더 이상 서양제국에 대응할 수 없다는 양이(攘夷)폐기론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양측 간의 병기와 전투력의 차이는 양이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었고, 그것은 사쯔마한 내부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된다. 결국 사쯔마한은 영국과의 전투 이후 양이론을 폐기하고 화친으로 돌아섰다. 세 차례에 걸친 영국과의 회담은 물론 강화회담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막번체제가 최종적으로 붕괴되어 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했다. 마지막 회담에서 사쯔마 측은 영국 측에 군함의 구입을 의뢰하고 있고, 영국 측도 사쯔마의 요구에 따라 군함의 구체적인 형태, 가격, 건조에 필요한 시일, 교사단의 파견까지도 논의하고 있다.⁴⁹⁾ 즉, 이 회담에 의해 사쯔마 측은 전쟁 배상금으로서 2만5천 파운드를 지불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적대국이었던 영국을 군사적 파트너로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회담의 직후부터 메이지 유신에 이르기까지 사쯔마 측은 적어도 13척 이상의 군함을 영국으로부터 구입했다.⁵⁰⁾ 사쯔마 측은 나마무기(生☐) 사건을 계기로 교전을 시작했으나, 전쟁의 종결 후에는 양이론을 폐기하고, 영국과 완전한 화친관계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군사적 유대강화는 사쯔마한이 막부의 군사적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 것이었다.

초슈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시모노세키 전쟁이 끝난 직후인 8월 8일 오후, 타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를 정사로 하는 초슈한의 강화사절은 4개국 연합함대의 기함 울리아라스호에서 강화 회담을 시작했다. 이때 요구된 배상금은 3백만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이었으나, 그 배상금은 결과적으로 양이의 실시를 선언한 막부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1860년대 조선과 일본의 양이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첫째, 병인양요를 이끌던 주체가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로서 기능했던 조선정부였던 반면에, 일본의 대서양무력충돌의 주체는 사쯔마와 초슈라는 당시 막부의 외곽에 위치한 두 개의 강력한 번(藩)들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의 대서양무력충돌은 서양제국에 대한 양이전쟁이었음과 동시에, 막부에 대한 번(藩)들의 정치적 긴장관계로부터 파생한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즉, 양이전쟁은 양이의 실시를

49) ☐薩藩海軍史☐ 中, 655-656쪽.

50) 勝海舟, ☐海軍☐史☐ (東京: 原書房, 1967), 447-448쪽.

놓고 막부와 대립하던 사쓰마와 초슈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로서 발발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이 내전으로 향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셋째, 당시 막부와 번(藩)들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전쟁의 종결 이후 사쓰마와 초슈에 의한 양이론의 극적 폐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후루카와 카오루(古川×)는 19세기 중엽 일본의 양이론에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진 두 갈래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른바 ‘순수 양이론’의 지지자들이 주자학 문명의 체득자로서, 서양 세력을 야만의 이름으로 배격했다면, ‘탄력적 양이론’의 지지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양이론을 주장하면서도, 실상은 양이론을 매개로 막번체제의 해체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⁵¹⁾ 즉, ‘탄력적 양이론자’들에게 있어서 양이는 본질적으로 고수해야 할 가치체계로서가 아니라, 막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슬로건에 불과했던 것이다. 19세기 중엽의 일본에서 그와 같은 ‘탄력적 양이론자’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쟁 이후 양이론의 극적 폐기에 도달한 사쓰마와 초슈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탄력적 양이론자’들의 존재는 동시대 조선의 정치구조 안에서는 현실적인 힘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그러한 차이는 결과적으로 막번체제와 중앙집권체제라는 일본과 조선의 특수한 정치구조로 환원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V. 양이전쟁 후 일본과 조선의 군사기술

-----: 비교사적 시각을 통해

51) 古川×, ×幕末長州藩の攘夷××× (東京: 中央公論社, 1996), 19-20쪽. 한편, 이치이 사부로 (市井三×)는 막말기의 양이를 ‘신앙적 양이’와 ‘자각적 양이’로 구분하고 있다. ×思想からみた明治維新× (東京: 講談社, 2004), 142쪽. ‘신앙적 양이’란 서양, 즉 야만에 대한 철저한 배격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각적 양이’는 양이운동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 또한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후루카와가 말하는 ‘순수 양이론’과 ‘탄력적 양이론’의 구분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애당초 ‘탄력적 양이론’, 즉 ‘자각적 양이’는 막부타도라는 숨겨진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다면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말기 일본의 양이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근대 일본 문명의 극적 전회를 이해하는데, 좋은 실마리를 던져준다.

1. 일본의 내전과 서양 군사기술의 수용

1850년을 전후해서 일본은 기존의 화승총이나 수석총을 뇌관총으로 개조하거나, 뇌관식 권총을 다수 제작했다. 그러나 사쓰마와 초슈의 양이전쟁 직후인 18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총기를 개량하거나, 자체 제작하는 방식은 더 이상 긴박한 시대적 요구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특히, 총신에 정교한 나선형 홈을 파야 하는 후장식 라이플총의 제작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양이전쟁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총기의 제작보다는 성능이 뛰어난 서양 소총의 수입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때부터 메이지 유신(1868)에 이르기까지의 총기수입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들이는 총기 매매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다.

사쓰마 전쟁 이후, 양이노선을 실질적으로 폐기한 사쓰마한은 영국을 통해 소총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군사력의 증강을 꾀하게 된다. 전쟁 직후인 8월에는 나가사키의 영국인 무기상 그라바를 매개로 미국에 대포 89문을 주문했다.⁵²⁾ 소총에 대해서도 일찍이 사쓰마 전쟁에서 사용하던 게베르총을 대신하여, 원거리 사격과 신속발사가 가능한 선조총을 대량으로 구입했다.⁵³⁾ 나아가 1864년 6월에는 군사교육기관으로서 카이세이조(開成所)를 신설했고,⁵⁴⁾ 또 18명으로 구성된 유학생 일행을 영국에 직접 파견했다.

사쓰마와 초슈의 내전 준비가 노골화 되어갈 때, 막부의 대응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1864년부터 1865년 초까지, 막부의 주도권은 친불파의 수중에 있었다. 당시, 대일무역에 있어서 영국에 비하면 작은 영향력밖에 갖지 못했던 프랑스는 산업구조의 근대화에 전력을 쏟고 있었고,⁵⁵⁾ 1860년 무역과 기업의 자유화를 불러온

52) 『薩藩海軍史』中, 591-592쪽.

53) 메이지 유신을 전후하여 일본에 수입된 소총은 게베르, 미니에, 스나이더의 3종류가 가장 많았다. 게베르총이 전장식 활강총이었다면, 미니에와 스나이더총은 라이플총이었다. 특히, 스나이더총은 1866년 영국정부가 앤필드총을 후장식으로 개조한 것이다. 이 총기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요코하마항을 통해 수입되었다. 山口和雄, 『幕末貿易史』(東京: 中央公論社, 1943), 122쪽.

54) 『薩藩海軍史』中, 80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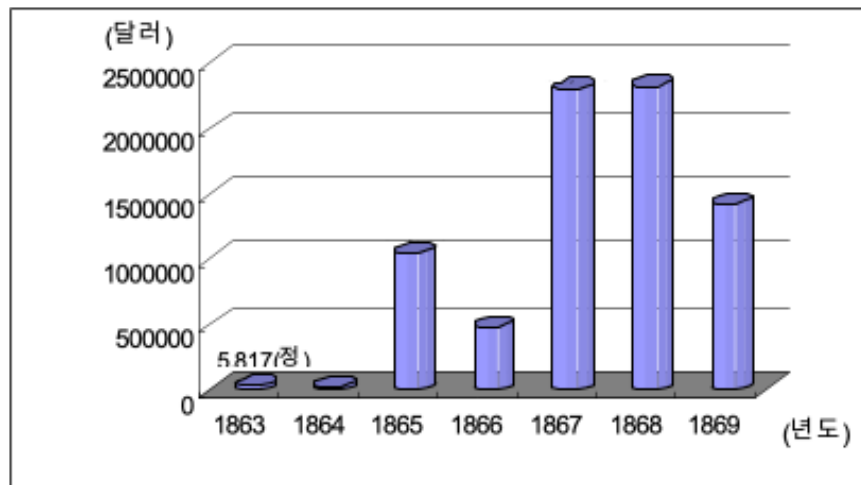
55) 鳴岩宗三, 『幕末日本とフランス外交』(大阪: 創元社, 1997), 38쪽. 예를 들어 1863년의 요코하마에서의 무역선의 입항과 출항척수를 보면, 입항척수는 영국이 139, 미국 19, 프랑스 6

영불통상조약의 체결은 생산의 비약적 증대와 자본주의적 기업의 집중을 촉진시켰다. 이 같은 정세변화를 틈타 프랑스의 정계와 재계 안에도 적극적인 극동정책을 꾀하는 세력이 등장했고, 대일무역 또한 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새롭게 변모하고 있었다.⁵⁶⁾ 당시 대일무역의 새로운 임무를 담당한 사람은 1864년 3월, 신임공사로 파견된 로슈(Leon Roches, 1809-1901)였다. 프랑스 측의 지원과 로슈의 외교적 성과는 막부 내에서 친불파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 후 막부의 군사정책은 친프랑스적 성격으로 변모하게 된다. 나아가 영국은 이미 양이전쟁 이후, 사쓰마와 초슈와의 관계를 강화시켰으며, 그것은 막부로 하여금 프랑스로의 접근을 부추긴 요인이 되었다. 한편 1860년대의 시점에서 병기의 제조를 통한 자립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일 수 없었다. 양이전쟁 이후 초슈와 사쓰마를 중심으로 한 막부 타도세력은 병기의 자립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서양 병기의 수입 노선으로 완전히 돌아섰으며,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막부로서도 더 이상 병기의 자립화를 외칠 수는 없었다.

<표 1>은 내전적 상황이 격화된 1863년부터 메이지 유신 직후인 1869년까지 일본에서의 서양식 소총 수입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7년간 수입된 총기는 약 56만정으로, 거기에 밀무역의 형태로 들어오거나 누락된 기록까지 더하면 훨씬 많은 수량의 총기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1867-1868년은 양측 간의 내전이 정점에 달하여, 마침내 막부의 권력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신정치세력에게 이양되는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막대한 양의 서양식 소총이 일본에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며, 출항척수는 영국 141, 미국 19, 프랑스 4로 나타나고 있다.

56) 石井孝, 『明治維新の國際的環境』(東京: 吉川弘文館, 1966), 616-617쪽.



<표 1> 일본의 서양식 소총 수입 상황(1863-1869)⁵⁷⁾

57) 호라 토미오(洞富雄)는 영국의 *Commercial reports from Her Majesty's Consuls in Japan*과 미국의 *Annual report on the commercial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with foreign nations* 등을 참조로 메이지유신을 전후로 한 소총 수입량을 산출하고 있다. 본 표는 그의 조사에 따른다. 洞富雄, 『幕末維新期の外』と抵抗, 442쪽.

1860년대 일본정치의 격변은 소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서양 병기들에 있어서도 대량 유입을 불러 일으켰다. 1865년부터 1867년까지의 3년간, 막부는 적어도 9척의 군함을 서양으로부터 사들이고 있다.⁵⁸⁾ 일찍이 선박 제조의 자립화를 외치던 막부도 더 이상 내전적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⁵⁹⁾ 1854년부터 1868년까지를 놓고 보면, 막부와 번(藩)들이 수입한 서양 함선은 약 119척에 이른다.⁶⁰⁾ 또 막부는 프랑스 측에 대포의 주문을 의뢰하여, 1865년 5월11일에는 16문의 신식 캐논포가 요코하마에 도착했다.⁶¹⁾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866년 사쵸(薩長) 연합이라 불리는 사쓰마한과 초슈한 사이에 막부 타도를 위한 동맹이 체결됨으로써, 막부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빠져들었다. 설상가상으로 1866년 6월에 시작된 막부의 제2차 초슈 정벌은 막부군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다. 초슈군의 주력을 이루었던 부대들이 거의 대부분 선조총으로 무장한 반면에, 막부군은 게베르총을 일부 장비했을 뿐, 화승총과 칼, 창 등이 여전히 무기로 사용되기까지 했다고 한다.⁶²⁾ 제2차 초슈 정벌의 실패 이후, 1866년 12월 제 15대

58) 勝海舟, 海軍歴史, 443쪽.

59) 당시, 막부가 선박기술의 자립화를 추진하려 했던 데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나가사키부교초유쇼(長崎奉行上書, 1860년 12월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네덜란드 등지로부터 주문하거나 사들인 배들은 의외로 쉽게 파손되고,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일본국내에서 제조한 것과는 달리 내부를 조사해보면, 대양에 나갈 때 위험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서양군함에 대한 맹목적인 매선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었다. 그밖에 요코스카 제철소의 설립 배경에도, “페리가 내향한 이후로 외국으로부터 수척의 군함을 구입했으나, 그들이 우리를 속여서 폐선을 꾸민 것이 많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언젠가 해군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지적되어, 어렵게 구입한 군함의 내부가 종종 매우 험한 상태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明治文庫 宛 編, 須賀海軍船廠史 第一 (1963), 1쪽. 나아가, 서양 병기에의 지나친 의존은 서양열강 내부의 긴장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무기판매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점은 막부로 하여금 무기제조를 자립화할 필요성을 더욱 촉진시킨 요인이었다.

60) T. M. Milne ed, *Steam Vessels sold to or reportedly sold to Japan up to 1870* (Tokyo: T. M. Milne, 1962); 勝海舟, 海軍史 (東京: 原書房, 1967), “船譜” 등을 참조로 산출한 양이다.

61) 이 대포는 제2차 초슈 정벌에 대비하기 위해 주문했으나, 너무 무거웠던 나머지 산악지형이 심한 육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기에, 결국 함재포로서 탑재했다고 한다. 石井孝, 앞의 책, 623쪽.

62) 막부에 의한 제1차 초슈 정벌 이후, 대대적인 군제개혁을 단행했던 초슈한은 전장식 선조총인 미니에총을 서양으로부터 대량으로 수입해 들여온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長

도쿠가와 막부의 장군으로 취임한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는 프랑스를 지원세력으로 강력한 군제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막부의 군제개혁은 1864년 시모노세키 전쟁과 제1차 쇼슈 정벌 이후, 대량의 소총을 서양으로부터 수입함과 동시에, 과감한 군제개혁을 단행했던 쇼슈한과 비교하면 이미 때늦은 것이었다.⁶³⁾ 1866년 12월 8일, 프랑스 공사 로슈의 알선에 의해 15명의 프랑스 군사고문단이 일본에 도착하여, 막부의 보병, 포병, 기병을 조련했지만, 당시 막부군의 중심은 군자금으로 고용된 용병들이 대부분이었다.⁶⁴⁾ 1867년 3월에는 막부의 신예군함 카이요마루(開陽丸)가 네덜란드로부터 요코하마항에 도착했고,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자국의 공장에서 제조하기 시작한 1866년식 샤프포총 2,000정을 막부로 보냈지만,⁶⁵⁾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1867년 10월,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타이세이호우칸(大政奉還, 막부의 15대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납한 사건)을 선포함과 동시에 새로운 권력구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9일 교토에 입성한 사쓰마와 쇼슈의 연합군은 왕정복고를 선언하고, 천황정부를 새롭게 조직했다. 1868년 1월 3일, 교토 외곽의 토바(鳥羽)와 후시미(伏見)에서 막부군과 사쵸군을 주력으로 하는 신정부군 간에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지만, 신식 소총으로 무장한 사쵸군은 무려 3배에 달하는 막부군을 괴멸시킴으로써, 약 260여년간에 걸친 도쿠가와 막부의 통치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처럼 19세기 중엽 일본의 정치적 격변은 서양의 병기가 일본에 유입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물론 당시의 일본은 최신 병기의 수혜국이었다기보다는, '2류 병기의 순환시장'에 가까운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눈부시게 진화하던 국제적 병기 거래 시장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1868년 메이지 원년으로부터 17년간에 걸친 기간은 메이지 신정부가 일본 전역에 산재한 군사공장을 전국적 규모로 계승, 정비한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谷川慶太 編, 『軍事技術の立廻りと不均衡』(東京: PHP 研究所, 1986), 22쪽; 野口武彦, 『幕府兵隊』(東京: 中央公論新社, 2002), 107-108쪽.

63) 藤原彰, 『軍事史』(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61), 10쪽.

64) 石井治, 『日本の歴史』(東京: 小學館, 1993), 182쪽.

65) 所莊吉, 『火繩銃』(東京: 雄山閣, 1964), 169쪽. 하지만, 반막부군의 동진결과, 막부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켰을지도 모를 이 총은 결국 막부군의 손에 건네지지 못했다.

중앙집권화된 메이지 정부가 신군사기구의 창출을 통해 일본을 군사적 자립화로 이끈 과정이기도 했다.⁶⁶⁾ 도쿠가와 막부가 총력을 기울여 건설하던 요코스카 제철소는 막부 권력의 붕괴로 인해 신정부로 이양되었고, 해군공장으로 그 규모를 더욱 확장하게 된다.⁶⁷⁾ 이 기간 동안 총기의 자립화도 빛을 보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전장식 엔필드 총을 후장식으로 개조하여, 1866년 스나이더총(Snider Enfield rifle)을 제작했는데, 이 총은 1881년 일명 13년식 무라타총이 개발되기 전까지 메이지 육군의 준제식총으로 사용되었다. 일본 최초의 제식 군용총인 13년식 무라타총은 육군소장 무라타 츠네토시(村田 篤芳, 1838-1921)에 의해 고안된 총으로, 이 소총의 개발은 개항 이후 수입총에 의존하던 일본이 마침내 국제 수준과 견줄 수 있는 총기의 국산화를 완성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19세기 중엽의 내전을 틈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일본의 군사기술이 이제 조선의 해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힘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2. 조선의 양이론과 전통적 군사기술의 정비

조일수호조약의 직후,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는 조선의 예조판서 조영하(趙寧夏)에게 보낸 유학생 파견에 관한 서간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술(醫術), 기기(汽器), 군수(軍需), 측량(測量) 등에 있어서 다행히 약간의 진보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귀국이 이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전수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명예로운 일이며, 귀국에 있어서도 외세를 방어하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의 친절로부터 나온 것입니다.⁶⁸⁾

1876년 조선의 개항은 메이지 일본에 의한 포함외교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 서간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개국 직후 조선의 군사기술은 19세기 중엽 서양군사기술의 대량 수입에 의해 군사적 성장을 이룬 일본과 이미 ‘격차’를

66) 小山弘健, 『日本軍事工業の史的分析』(東京: 御茶の水書房, 1972), 64쪽.

67) 石塚裕道, 『日本資本主義成立史研究』(東京: 吉川弘文館, 1973), 254쪽.

68) 花房義質, “留學生派出催進ノ書簡”, 『日本外交文書』第10卷, 307-308쪽.

보이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그와 같은 군사력의 차이가 후일 일본에 의한 조선 식민지화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은 새삼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편전쟁 이후 연일 조선을 압박해 들어왔던 서양열강의 위협에 대해, 조선정부가 취한 군사적 대응책은 무엇이었을까? 본 절에서는 일본과의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위에, 동시대 조선의 군사기술은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가를 간단히 조감하고자 한다.

대원군 정권기의 군사정책을 이끈 사람은 신관호(申觀浩)였다. 신관호에 의해 추진된 군사정책은 강렬한 양이론에 기반한 것이었다. 즉, 신관호의 군사정책은 서양세력의 침략에 대해 지구전을 전개하며, 산성을 중심으로 복잡한 조선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는 전통적 방어전술의 연장선상에 있었다.⁶⁹⁾ 병인양요 이후, 조선의 군사력은 주로 포군을 중심으로 정비되어 나갔다. 조선정부는 고종 3년(1866), 경기감사 유치선(兪致善)의 건의에 따라 과거에 화포과(火砲科)를 신설하였고, 이양선의 출몰이 잦은 서해안에 우선적으로 포군(砲軍)을 강화시키고 있었다.⁷⁰⁾ 당시의 수도권 방비는 훈련도감(訓練都監), 진무영(鎭撫營),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 총융청(總戎營)의 5군영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각 군영의 동향으로부터도 조선정부가 포군의 증설을 통해 서양세력의 재침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866년 11월 16일의 진무영별단(鎭撫營別段)에 의하면, 관하각진(管下各鎭)에 별파진(別破陣)과 포수를 조직한다는 기록과⁷¹⁾, 1868년 7월 11일에는 진무영에 별기사(別騎士)와 별무사(別武士)등 800여명의 포군이 신설되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으며,⁷²⁾ 또 강화도를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군이 철수한 뒤 금위영과 어영청에서도 포수를 새롭게 조직하는 등의 변화가

69) 병인양요 직후인 고종4년(1867) 1월 16일 신관호는 군무6조라는 조선의 군사개혁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개혁안을 통해 당시 조선의 군사적 대응책에 관한 기본적 노선을 읽을 수가 있다. 이 군무6조는 경병단조(京兵團操), 장선향포(鎭選鎗砲), 권설민보(權設民堡), 북연제병(北沿制兵), 독수내정(獨修內政), 심과이변(審料夷變)으로 나누어진다. 신관호는 조선후기에 있어서 거의 형식적으로 행해지던 포방훈련을 강화하고, 또 양질의 화약 제조를 위해 그 제조법을 소개했던 〓자초신방(煮硝新方)〓을 인쇄하여 각 지방에 보낼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70) 〓高宗實錄〓 고종3년 9월 16일조.

71) 〓備邊司謄錄〓 고종3년 11월 16일조.

72) 〓日省錄〓 고종5년 7월 11일조.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³⁾ 나아가 1867년 8월에도 총융청에 선방포수(善放砲手) 125명을 선발하여, 1초를 새롭게 만들고 있었다.⁷⁴⁾

물론 새로운 무기 제작에 대한 시도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69년경 훈련대장 신관호는 函國新造軍器圖說(訓局新造軍器圖說)과 函國新造機械圖說(訓局新造機械圖說)이라는 책을 편찬하여, 당시의 무기개발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병서들은 函源필비의 내용에 신관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들을 첨가한 것으로, 공교롭게도 조총에 대한 기술은 빠져있으나, 신관호가 가장 공을 들였던 수뢰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중국의 海國圖志를 참고로 만들어진 수뢰포는 내해로 들어오는 선박을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시한폭탄이었다.⁷⁵⁾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함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도성을 위협하던 사건을 겪은 조선군은 서양선박이 내해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와 같은 수뢰포를 다수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포군을 중심으로 한 조선군의 증강은 당시의 조선이 놓여있던 상황으로부터 볼 때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에서의 전투는 서양열강의 위력적인 군함과 대포에 맞설 수 없었고, 나아가 서양으로부터의 군사기술 습득과 병기의 수입도 당시로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병인양요 이후, 신관호를 중심으로 조선정부가 취해 오던 군사정책은 고종8년(1871), 신미양요를 통해 다시 한번 시험무대에 오르게 된다. 이 무력충돌은 1866년 조선을 방문하여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조선군을 납치하고, 관민에게 총을 난사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당시의 평안감사 박규수(朴珪壽)와 평안관민이 힘을 합쳐 격침시킨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71년 3월 로우(F. F. Low) 주청(駐淸) 미국 공사는 군함 5척, 대포 85문, 병력 1,230명을 이끌고 상해를 출발하여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미국 아시아 함대와 합류하였고, 4월 6일 나가사키항을 출항하여 남양부(南陽府) 인근에 정박했다. 강화해협의 입구로부터 수로를 측량하던 탐사함대는 한강어구의 광성진까지 거슬러 올랐는데, 여기서 조선군의 선제공격이 시작됨으로서 한미간의 최초의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미국 측은 신식대포의 위력을 십분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최신의 레밍턴(remington) 소총으로

73) 日省 高宗 3 年 10 月 8 日 詔.

74) 日省 高宗 4 年 8 月 23 日 詔.

75) 高宗 實錄 高宗 4 年 9 月 11 日 詔.

조선군을 무력화시켰다. 제2차 원정에서는 강화도의 최후거점이었던 광성보(廣城堡)에서 양측 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이 광성보의 전투는 진무중군(鎭無中軍) 어재연(漁在淵)의 전사를 비롯하여, 조선군에 막대한 타격을 준 결과, 미국 측의 승리로 끝났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의 전사자는 약 350여명, 미국 측의 전사자는 불과 3명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미간에 최초로 벌어진 이 무력충돌은 한사람을 희생시키기 위해 약 1톤의 탄환을 소비한 전쟁으로 기록된다.⁷⁶⁾ 그것은 전장에서 막대한 물량을 쏟아 붓는 근대적 전투였던 것이다. 그러나 광성보 전투의 결과가 알려진 다음날, 우의정 홍순목(洪淳穆)은 국왕 고종에 대한 진강석상에서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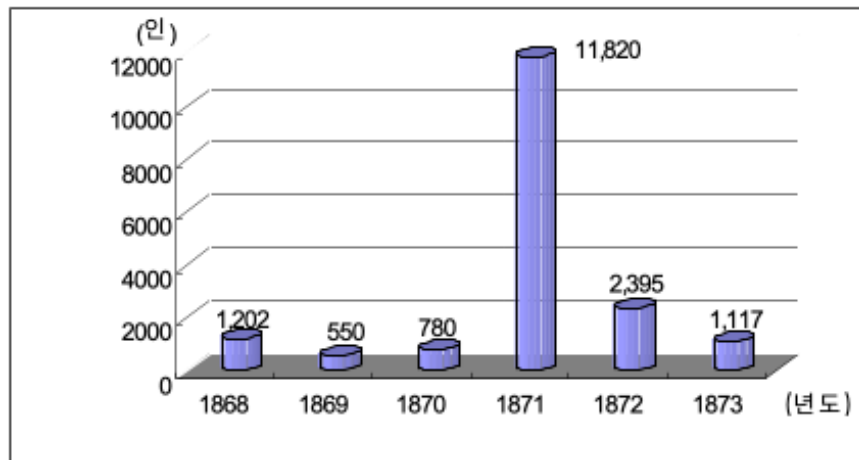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예의의 나라가 오랑케와 화친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화의(和議)를 논하는 자는 매국의 율(賣國之律)로서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⁷⁷⁾

이처럼 조선정부의 결의로부터는 여전히 강고한 양이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결국 물치도에 정박해 있던 미국함대는 조선정부의 의지를 꺾지 못한 채, 5월 16일 조선에서 물러감으로서 신미양요는 종결을 맞이했다. 이 전투가 끝난 후, 조선정부의 양이론은 더욱 강고해졌고, 서양 세력과의 화친을 논하는 자는 매국으로 처벌한다는 척화비가 전국 각지에 세워지게 되었다.⁷⁸⁾ 신미양요 이후, 조선의 포군은 다시 한번 급팽창하게 된다. <표 2>는 최병욱의 연구에 의한 1868-1873년 사이에 조선 포군의 증설 상황을 보여준다.

76) Griffis, op. cit., p. 411.

77) 高宗實錄 高宗8년 4월 25일조.

78) 承政院日記 高宗8년 4월 24일조.



<표 2> 조선후기 포군의 양성 상황(1868-1873)⁷⁹⁾

그러나 군사력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쇄국양이론에 근거하여 서양열강의 개항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대원군은 고종10년(1873), 결국 실권을 잃게 된다. 메이지의 계몽주의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통속국권론(通俗國權論)(1878) 안에서 “백관의 만국공법은 수문의 대포를 이기지 못하고, 수권의 화친조약은 한 상자의 탄약을 이기지 못한다”⁸⁰⁾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19세기는 서양 제국주의의 침탈이 동아시아를 폭풍처럼 휩쓸던 시대였다. 조선이 개항한지 6년 후인 1881년, 일본과 중국에 유입된 서양문물을 견학하고 귀국한 어윤중(魚允中)은 국왕 고종에게 당시의 세계를 “춘추전국시대보다도 가혹한 대전국시대”라고 말하고 있다.⁸¹⁾ 그는 영국의 국세가 융성한 것은 해군이 강력하기 때문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선의 지세 또한 영국과 비슷하기에, 조선도 하루빨리 해군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⁸²⁾ 그 해 조선정부는 신식 무기제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일본에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을 청국에는 영선사(領選士)를 파견했다. 나아가, 고종21년(1884)에는 기기국(機器局)을 설치하여, 서양식 소총의 제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국제적 병기 시장으로부터 고립되었던 조선의 입장에서 19세기 이후 빠른 진보를 거듭한 서양식 총기를 제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총기 제조의 어려움과, 시대적 긴박감은

79) 최병욱,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경인문화사, 2000), 74쪽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80) 慶應義塾編, 『福澤諭吉全集』第4卷(東京: 岩波書店, 1959), 673쪽.

81) 국사편찬위원회 편, 『朝鮮政年表, 陰晴史』“朝鮮政年表”(국사편찬위원회, 1958), 122쪽.

82)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魚允中全集』“聞見”(아세아문화사, 1979), 61-62쪽.

조선군으로 하여금 신식 총기의 구입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으나,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던 조선으로서는 그것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점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한층 강화시킨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의 침탈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본의 침략에 맞선 다수의 조선인들이 의병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한말에 이르기까지 의병운동의 주력 화기는 여전히 화승총이었다고 알려진다.⁸³⁾ 1907년 일본에 의한 조선 군대의 해산 이후, 신식무기를 가진 해산병들이 의병에 합류함으로써 제국 일본에 맞선 의병들의 화력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그것만으로는 패망으로 향하는 조선의 운명을 되살릴 수는 없었다.

83) 국방군사연구소 편, 『한국무기발달사』(국방군사연구소, 1994), 600쪽.

VI. 나오며

아편 전쟁 이후, 서양제국은 발달된 군사기술에 힘입어 동아시아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다카시마 휴한을 중심으로 서양 총기의 수입과 포술의 도입을 시작한 일본은 그와 같은 서양제국의 외압에 맞서 본격적인 군사적 대응책을 구상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서양 총기의 수입과 군사기술의 강화는 서양제국의 동아시아 침공이라는 외압에 의해 규정되었으면서도, 동시에 그곳에는 막번체제라는 일본 정치의 특수한 긴장구조가 내재되어 있었다. 1853년 미국의 군함 페리의 내항은 에도시대 이후 지속된 그와 같은 일본의 정치구조에 급속한 균열을 불러 일으켰다. 도쿠가와 막부는 서양의 군사적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 번(藩)들의 병기 제조를 허용하면서도 그것을 어디까지나 막부 중심의 거국적 체제 안에 담아두려 했지만, 각 번(藩)들은 막부의 의도와는 달리 서양제국의 외압을 근거로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막번간의 그와 같은 긴장감은 1860년대 서양과의 두 차례에 걸친 무력충돌을 계기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양이전쟁을 이끈 정치적 주체는 사쓰마와 초슈라는 막부의 외곽에 위치한 번들이었다. 그들에 의해 주도된 전쟁은 결과적으로 양이론의 극적인 폐기로 귀결되었고, 막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그들이 내건 ‘슬로건으로서의 양이’는 막번체제라는 일본의 특수한 정치구조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

양이전쟁 이후 일본의 막번체제는 결국 급속한 균열을 일으키게 되고, 그 체제가 와해되어 가는 과정은 막대한 양의 서양식 병기가 일본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막부와 사쓰마, 초슈를 중심으로 한 번들간에 사활을 건 내전이 시작되면서, 나가사키, 요코하마 등의 개항장들은 대량의 군수물자가 거래되는 국제적 병기 거래 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서양제국의 눈부신 병기 발달이 진행되면서, 2류 병기로 분류되거나 임무를 마친 병기들이 내전을 틈타 일본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런 점에서 19세기 중엽의 일본은 국제적 병기 순환시장에 있어서 ‘2류 병기의 집적소’로 규정될 수 있다.

우리는 본 논문을 통해, 19세기 중엽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서양식 소총 수입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것은 곧 19세기 일본의 군사적 근대화가 가진 특수한 성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875년, 강화도에서 일어난 일본 군함에 의한 무력시위는 아편전쟁 이후 심화된 일본과 조선 사이의 군사기술의 격차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고, 그것은 근대화에 대한 양국의 운명을 미리 예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ABSTRACT>

The Political Convulsion and the Change of Military technology in Japan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the Civil War and Development of Guns

KIM Sungkhu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his paper analyses how military technology was developed in Japan in the mid-19th century. I especially focused on development of guns in Japan in the mid-19th century by comparing with the military policy of Korea. Modern western countries that accomplished an industrial revolution started to invade into East Asia after the Opium war. As western steamships invaded into East Asia, they were armed with powerful guns, cannons, and troops.

The invasion of western imperialists caused a crack in a traditional political system of Japan. The political system of Tokugawa Japan which is called as Bakuhan Taisei(幕藩体制) started to collapse rapidly after Perry's visit in 1853. The struggle between Bakufu(幕府) and Anti-Bakufu(反幕府) activists expanded into the civil war in the 1860s. Many western guns, cannons, and military technology were imported to Japan during the civil war. On the other hand, Korean who strictly maintained the exclusion of westerners strengthened a traditional military technology against the invasion of western imperialists. Korean government reorganized the traditional infantry who mainly armed with match locks, and conventional weapons.

I concluded that the success and failure of modernization in Japan and Korea was influenced by the military technology in the mid-19th century. Especially,

the civil war in Japan was an important social factor which brought the difference of modern military technology between two countries. Japanese government that rapidly imported western military technology finally opened the door of Korea by gunboat diplomacy in 1876.

Key words: match lock, western gun, steamship, military technology, exclusionism.